

오크릿지, 코러스가 메인보컬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오크릿지 와이너리

사실 첫 경험이 아닐 수 있다. 그간 수없이 마셨던 미국 와인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로다이의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오크릿지(Oak Ridge Winery·ORW)의 와인 애기다. ORW는 1934년에 설립됐다.

ORW 스티븐 메리트 부사장은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로다이 지역은 덩지만 해풍이 아침해쪽으로 열기를 식혀줘 대표적인 포도품종인 진판델 등을 재배하기 매우 이상적”이라며 “OZV, 올드소울 등의 자체 브랜드로도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아직도 포도 생산량의 3분의 2는 나파밸리나 소노마 지역을 포함한 대형 브랜드에 팔고 있어 모르는 사이 이미 오크릿지 와인을 마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크릿지는 이전까지 자체 와인은 없이 대형 브랜드에 벌크로 납품만 했다. 이를테면 오랜 기간 동안 실력은 있지만 숨겨진 코러스 싱어였던 썬이다. 코러스 싱어가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것은 2007년이다. 통상 해오던 벌크 계약을 놓치게 되면서 대량으로 남아버린 포도즙을 해결하기 위해 OZV란 자체 브랜드로 와인을 시장에 내놨다. OZV는 올드 진판델 바인의 약자다.

우연찮게 등장한 메인 보컬이지만 인기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OZV는 현재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와인이며, 오크릿지는 연간 수출량이 가장 급등한 와이너리가 됐다.

매력은 첫번째는 진판델이라는 품종, 두번째는 오래된 포도나무를 뜻하는 올드바인에서 나온다.

로다이 지역에 와인 산업이 시작될 당시 가장 먼저 심은 묘목이 바로 진판델이다. 진판델은 로다이 지역을 상징하는 품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가 됐다.

사실 국내에선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콤한 한국 음식과 무엇보다 어울리는 와인 포도품종이 진판델이다. 매운 닭발이나 제육볶음 등 매운 육류와도 같이 마실 수 있다.

메리트 부사장은 “특히나 오크릿지의 진판델은 다른 미국 진판델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이라며 “그만큼 더 마시기 편하고(easy drinking),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오크릿지는 125년 이상 된 오랜 수령의 진판델 나무까지 다양한 포도나무를 보유, 직접 관리하고 있다. 여러 품종을 섞는 블렌드 와인에도 수령이 50년 이상인 와인을 쓴다. 올드바인은 깊은 뿌리를 뻗어 과실이 골고루 익기 때문에 어린 나무에 비해 보다 진하고 깊은 맛을 낸다. 품질 기록도 적다.

‘올드 소울 올드 바인 진판델’은 50~75년 수령의 진판델 나무 과실을 선별해 만들었다. 부드럽고 기분좋은 정도의 타닌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베리류와 함께 초콜릿 향도 은은하게 맵는다.

‘올드 소울 카버네 소비뇽’은 깨끗한 과일 풍미가 집중됐지만 무겁지 않으며, 모난 부분이 없이 부드럽다. 구운 소고기나 돼지고기 요리와 먹으면 좋을 맛이다.

‘OZV 진판델’은 올드바인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진판델 품종이 90% 이상이지만 타닌과 무게감을 주기 위해 뿌디 시라를 5% 가량 섞었다.

‘OZV 레드 블렌드’는 진한 체리향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 진판델을 포함해 카버네 소비뇽, 뿌디 시라, 멀롯 등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네 가지 포도품종을 섞었다.

/smahn1@metroseoul.co.kr



(왼쪽부터)올드 소울 카버네 소비뇽, 올드 소울 올드 바인 진판델, OZV 진판델, OZV 레드 블렌드, 올드 소울 사도네이



롯데호텔제주 야외 정원./롯데호텔제주

19주년 ‘슈퍼 버스데이’ 타임세일 롯데호텔제주 ‘퐁차 라운지’ 가자!

객실 1박·조식·온수풀 등 혜택

일자별 선착순 20팀에만 판매

롯데호텔제주가 개관 19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전용 타임세일 프로모션 ‘슈퍼 버스데이(Super Birthday)’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1~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한정으로 진행된다.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일자별로 선착순 20팀에게만 판매된다. 투숙 가능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패키지에는 객실 1박과 함께 ▲조식 2인 ▲피트니스 클럽 2인 ▲제주 최대 규모의 사계절 온수풀 ‘해운’ 이용 혜택이 기본 특전으로 제공된다.

특히 프리미엄 오션룸과 테라스 오션룸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퐁차라운지 2인 무료 이용 혜택까지 추가 제공된다. 퐁차라운지는 롯데호텔제주의 상징인 퐁차에 마련된 투숙객 전용 라운지로, 달콤한 디저트와 커피, 프리미엄 티 등을 즐길 수 있는 ‘애프터눈 티 타임’, 제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벗삼아 맥주와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 등 시간대별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타임세일 예약 고객에게는 김포공항 롯데몰 무료 주차, 체크인 시 발렛 파킹 무료 1회, 제주공항과 호텔간 무료 셔틀버스, 투숙객 전용 어린이 놀이 공간 ‘키즈월드’ 무료 이용 등 고객 편의를 더욱 높여주는 특전들이 제공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네파, 친환경 방수재킷 ‘바스토’ 출시

네파는 방수재킷 ‘바스토(사진)’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네파가 새롭게 출시한 바스토는 고어텍스 팩라이트 셀 원단을 사용해 우수한 방수, 투습 기능은 유지하면서 무게는 15% 가량 줄여 가볍고 쾌적한 착장이 가능하다. 친환경 인증 및 친환경 발수를 적용한 고어텍스 소재로 제작됐으며,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 됐다.

이 제품은 후드 탈부착이 가능해 깔끔한 스타일과 스포티한 스타일, 두 가지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 소매단에는 벨크로, 후드 및 밑단에는 스토퍼가 적

용돼 몸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남성용은 블루그레이스, 털오렌지, 프레쉬피코, 라임, 블랙 등 총 5가지, 여성용은 포피레드, 캔디핑크, 페일바이올렛, 베이지, 네이비 등 총 5가지의 컬러로 출시됐다.



네파 상품본부 이희주 전무는 “바스토 방수재킷은 방수와 투습 기능이 뛰어나 날씨가 변덕스러운 봄과 초여름에 가벼운 아우터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며 “트렌디한 컬러로 출시돼 스타일링 시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CGV, 베트남서 대박... 월 관객 319만 돌파 ‘역대 최고’

진출 이후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기록

CJ CGV가 베트남 진출 이후 처음으로 월 319만명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월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웠다.

CJ CGV는 지난 2월 한 달간 베트남에서 319만명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CJ CGV는 2011년 7월 베트남 현지 1위 멀티플렉스인 ‘메가스타(Megastar Media Company)’를 인수한 이후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201만명 관객을 모았으며, 1년 만에 이 수치를 158% 가까이 끌어올렸다.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83%에 달하는 큰 성장세를 이뤄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월 최대 관람객 202만명을 불과 두 달 만에 넘어섰으며, 100만명 이상 관람객을 추가 동원하는 실적을 보였다.

CJ CGV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로컬 콘텐츠 강화, 지역 확장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공헌 확대가 주효했다.

지난 2월 베트남 영화시장은 로컬 영화의 장이었다. 최대 명절 Tết(설날)이 있는 전통적인 성수기라는 특수성도



미국 기업평판 톱10과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해리스 폴

있었지만, 로컬 영화 대작이 쏟아지면서 관객들이 극장으로 대거 몰렸다.

2월 5일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큐어 라이보바우’와 사극 코미디 ‘짱권’이 쌍끌이 흥행을 이끌었고, 22일 개봉한 액션 블록버스터 ‘하이핑과 코미디 영화 ‘부꾸이디아나오’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전체 베트남 영화 시장을 키웠다.

한편, CJ CGV는 2011년 베트남 진출 초기 하노이, 호찌민 등 1선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멀티플렉스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

CGV로 브랜드 전환이 이뤄진 2014년

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방 거점 도시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작년에는 미토, 팡응아이 등 6개 신규 도시에 진출해 지방 관객들을 모았다. 2013년까지 2·3선 도시에 4개의 극장만 운영하였는데, 2019년 2월 기준 32개까지 끌어 올렸다. 그 결과, CGV 전체 관객 중 2·3선 도시 관객 비중은 2018년 말 기준 36%로 수준이다.

CJ CGV 베트남 심준범 법인은 “CGV베트남은 이번 월 3백만명 관객 동원을 디딤돌로, 연내 2천만명 관객 돌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K플라자, 34기 인턴사원 공개 채용

AK플라자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 NSC쇼핑몰(AK&), 온라인쇼핑몰(AK몰)에서 함께 할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발분야는 ▲AK플라자·AK& 영업관리(Sales Manager), 마케팅(CRM·관측·영업관리·통계), 경영기획(인사·총무·IT·경영전략·부동산·법무), 재무(회계·자금) 등 ▲AK몰 영업관리(쇼핑몰 MD), 마케팅(온라인마케팅) 등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및 1·2차면접 순서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3월 11일부터 17일 18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대

학 졸업자 또는 2019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라면 연령, 전공, 학점, 여학점수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면접은 티타임 형식의 캐주얼 면접으로 진행된다. 실무진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대체하는 전형이다. 2차 면접은 종합면접(PT, 인성) 전형이다.

자세한 전형별 지원방법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턴 합격자는 4월 말부터 10주간의 인턴활동을 거친 뒤, 소정의 평가를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공채 34기 신입사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